

2013 / 5/12 (일) 정혜준

오늘 늦잠을 자서 애들한테 문자로 욕을 먹고 중학교애들과 놀았다
오랜만에 만나서 친구만큼 기분이 좋았다. 몇몇애들은 바빠서 놀지 못했지만
그래도 괜찮았다.

애들과 방학중학교에 가서 야구를 했다. 애들과 중3 때 즐겨했던 운동이었다.
오랜만에 하니 ~~몸이~~ 어깨와 마허리가 너무 아팠다. 애들에 비해 키만 크지
체중이 얼마 안 나가 공이 매우 느렸다. 그래도 오랜만에 하는 것치고

체중이 4kg 정도 늘어나서 괜찮았다. 야구가 끝난 후 자장면을 먹으러 갔다.
가위바위보를 해서 물려오기 단무지뜨기 등 애들을 많이 부려먹었다. 난 걸리지 않았다.

그후에 집에 가서 샤워하고 학원에 가서 학원수업 듣고 ~~학원~~ 학원애들과 밥을 먹고
집에 들어가 재운을 보았다.

오랜만에 중학교 애들과 재밌게 놀았다.